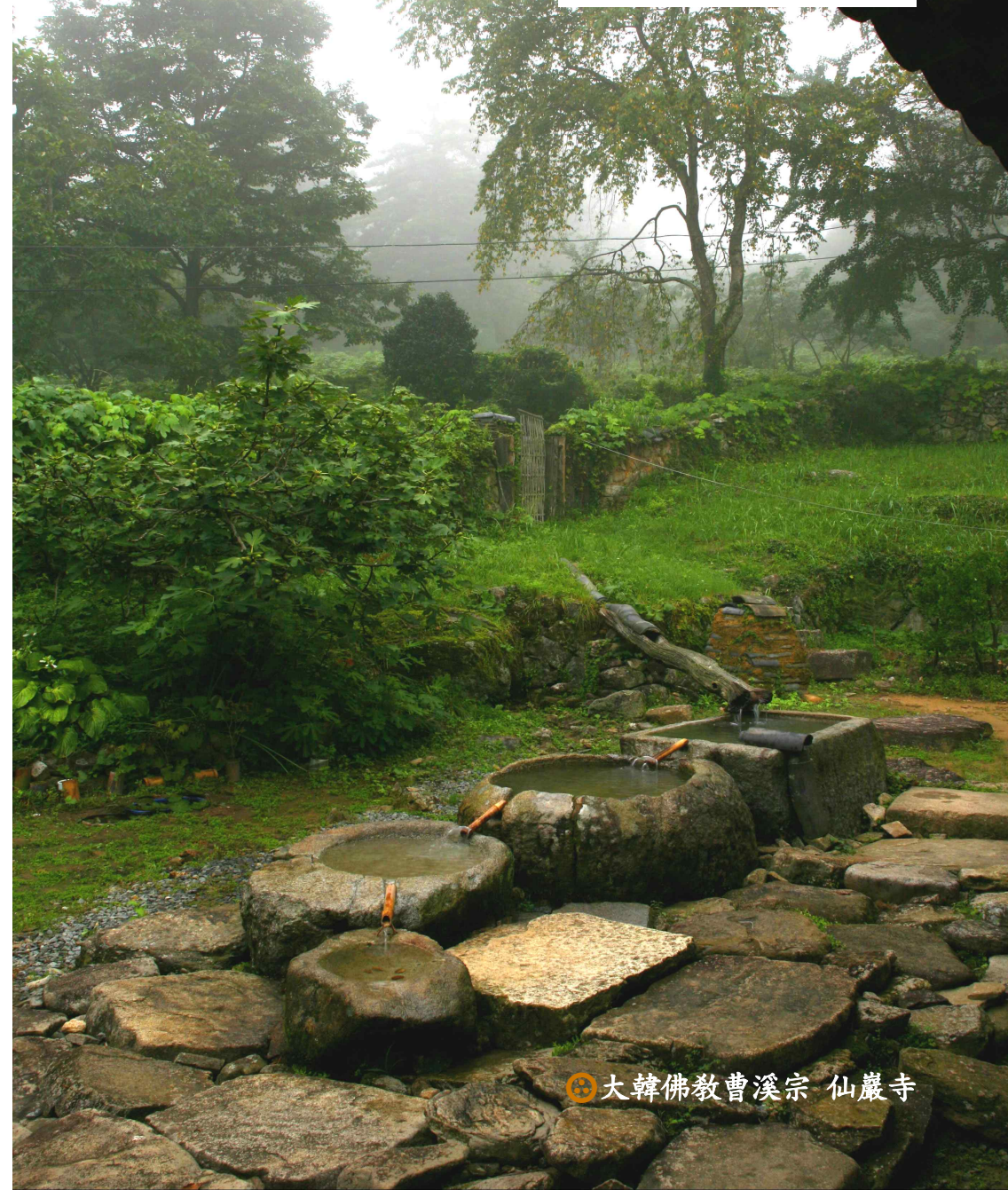


매 화 향 기 그 옥 한 조 계 산 선 암 사

仙 巖 寺

통권6호 불기이천오백오십구년 | 2015 06



선암사의 선지식



상월 새봉 (霜月 璽封 1687 - 1767)

스님의 법명은 새봉(璽封), 법호는 상월이며 자는 혼원, 성씨는 손 씨로서 순천 사람이다. 조선조 숙종 13년(1687)에 태어나 11세 되던 해 조계산 선암사로 들어가 극준(極俊)장로를 의지하여 출가, 16세에 세진당의 문신(文信)에게서 구족계를 받았다. 18세 때 설암에게 참학, 도가 통하여 의발을 전해 받고 재산의 노장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지식을 넓혔다. 27세에 조계산으로 돌아와 1713년 선암사에서 강석(講席)을 열었고, 영조24년(1748)에는 “선교양종도총섭주 표충원장 겸 국일도대선사”가 되었다. 영조43년(1766) 10월, "물은 흘러 바다로 돌아가고 달은 저도 하늘을 떠나지 않는다."하고는 담담하게 입적하니 세납 81세, 법랍 70세였다. 열반 후 사리(舍利) 3과가 나와 묘향(妙香)·선암·대둔(大苾) 세 절에 부도(浮屠)를 세워 분장(分藏)하고 제자들이 선암사와 대둔사에 비를 세웠다. 문집에 <상월집>이 있다.

매 화 향 기 그 읍 한 조 계 산

仙巖寺

선 암 사

www.선암사.org

월간 『仙巖寺』 불기2559년 통권 6호 2015년 05월 29일 발행

선암사의 선지식	상월 새봉	2
주지스님 법문	수행, 가까이 있습니다! - 절 수행	4
조계산 편지	三日修心千載寶	6
선암사의 정보	순천 선암사 팔상전 화엄경변상도	8
이달의 풍경	勇猛精進 - 마니주를 좇는 심정으로...	10
기초교리 강좌	부처님의 생애(5) - 설산수도(雪山修道)	12
신도탐방	벽하 김경식 불자	14
선암사 소식	5월 행사 및 6월 예정행사	16
신도회 소식	사랑방 이야기	18
선암사 안내	선암사 성지순례, 月刊 仙巖寺 정기구독	19



사진 진 우

표지설명 : 비 내리는 선원 뒷마당
하얀거 결체에 즙음하여 비 오는 선원 뒷마
당에서 조여름 정취에 빠진다.

발 행 일 2015년 05월 29일
발 행 인 법원(法願)
발 행 처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편 집 장 김희철
편집위원 진우 현광 허수길

주 소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전화번호 061) 725 - 5108
F A X 061) 753 - 5108
홈페이지 [HTTP://www.선암사.org](http://www.선암사.org)

수행, 가까이에 있습니다!

- 절 수행 -



선암사 주지 법원스님

오늘은 불교의 5대 수행법 중 절 수행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절 수행을 하게 되면 크게 네 가지를 체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심을 하게 됩니다. 절은 가장 낮은 데로 자기를 임하는 인사법이고 수행법이기도 합니다. 인도의 풍습에서 기인한 절은 자기의 몸을 낮추고 발을 닦아줌으로서 성인에게 공경과 존경을 표합니다. 그래서 절 수행을 자신을 가장 낮추는 하심의 수행이라고도 이야기 합니다. 절을 많이 하면 겸허하고 겸손해 질수 있으며 나아가서 나라는 집착을 비우는 무아의 길로 가는 수행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본인의 업을 맑힐 수 있습니다. 사실 업장은 소멸이 되지 않고 업

대로 살게 됩니다만 선업을 계속 지으면서 업을 선한 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업은 습관하고 비슷합니다. 좋은 업을 계속하면 습관처럼 내가지은 과보들이 선한 과보들로 희석이 되고 결국 선한 과업을 더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절은 요가의 동작을 닮아 있어 척추, 허리, 목, 사지 심지어는 내장기관까지 운동을 시켜주는 효율적인 전신운동입니다. 절을 열심히 하면 게으름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면서 얼굴도 맑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절 수행을 열심히 하시면 삼매를 체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 뿐만이 어떤 일든지 지극한 마음으로 집중을 하고 전념을 하게 되면 무념무상의 경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삼매라고 합니다. 처음에 절을 하거나 참선을 하면 한 시간이 지나도 정신집중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잊어버리고 살았던 생각까지 다 나고 무수한 잡념에 빠집니다. 하지만 반복된 수행을 하다보면 그런 잔상들이 떨어져나가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나중에는 오분도 안 되어 정신이 집중되고 몰입이 됩니다. 처음에는 삼매에 들었다가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금방 끊어집니다. 잠깐 잠깐 삼매에 드는 거지요. 이게 자꾸 반복이 되고 수행이 깊어지면 삼매에 드는 시간도 빨라지고 삼매를 유지하는 시간도 점점 길어집니다. 여러 수행들 중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절 수행을 통해 우리는 삼매를 경험하고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 중에 우리 불자들에게 ‘깨달음’이 어떻게 해석되고 또 어떻게 다가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많은 불자들을 만나서 이야기 해보면 불교를 믿는 목적이 부처님처럼 깨닫고자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불교는 깨우침의 종교이기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부처님의 삶을 살펴보면 깨달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나고 요원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 깨달은 이후에 우리를 고통 속에 빠지게 했던 번뇌를 제거함으로써 열반에 이르는 실천을 더 중요시 했습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번뇌의 불꽃들을 끊어버릴 수 있고

록 평생 동안 실천과 수행을 하신거지 평생 동안 깨달음을 추구한 것이 아닙니다. 후학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너무 신성시하면서 방대한 철학들과 함께 해석함으로써 오히려 이해하거나 다가가기 어렵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 당시의 경전들을 읽어보면 부처님께서 실제 깨달은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연기법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 얹히고설키고 연(緣)하여서 존재하는 것!”

이게 사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의 근간입니다. 세상에 이미 존재해있던 연기의 법칙을 깨달으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후 열반에 들기까지 연기의 법칙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당신 스스로도 연기법에 맞는 삶을 살면서 당신의 번뇌를 소멸하고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오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깨달음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깨달음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깨닫고, 그 깨달은 내용을 삶속에서 실천하며 번뇌와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부처님의 삶이며 수행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2559년 3월 법문에서... ☺

三日修心千載寶

정성어린 등불 하나가 세상을 밝히듯

선암사 주지 법 원

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주지 법원입니다.

부처님오신 날, 수계법회, 봉축법요식 등 많은 행사와 업무로 인해 참으로 정신없었던 5월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신도님들과의 첫 수계법회였습니다.

계를 수지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삼보에 귀의하고 불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고귀한 의식입니다.

2개월에 걸친 신도기본교육을 이수하신 신도님들께서 여법하게 삼귀의계와 5계를 수지하시고 불명을 받아지님으로서 우리 대한불교조계종단과 선암사의 정식 신도가 되는 관문을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절로서도 매우 기쁜 일임과 동시에 신도님 개개인으로서도 매우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선암사를 정상화 한다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서 선암사를 뺏고 뺏기는 일이 아니라 수행도량으로서 선암사가 세간과 출세간이 함께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천하는 도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선암사를 정상화 하는데 어찌 선암사를 토지와 건물의 부동산으로서만 이해하고 그 물질적 가치만을 두고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사찰의 역할을 간과하고 물질만으로 판단하는 세속적인 논리일 뿐입니다. 무릇 사찰이란 부처님을 모시고, 그 가르침을 믿고, 그에 따라 수행하고 실천하는 것에 전념하고자 모인 사람들의 단체요, 그를 담기위해 세운 건물들의 집합인 것입니다.



선지식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三日修心千載寶이요, 百年食物一朝塵라.

삼일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요, 백년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의 먼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선암사의 부동산에만 마음을 두고 있다면 이는 덧없는 탐심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주 나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매월 법회를 보며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노력하고자 하는 것은 사찰의 본질을 알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며 선암사를 올바르게 세우고자하는 노력으로, 이것이 다 수행이요 마음 닦는 일입니다. 이에 계를 받아지님으로서 우리는 천년의 보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 이번 초파일에 신도님들께서 십시일반 정성을 내어 하나씩 돌씩 올린 등공양은 앞으로 우리 선암사를 밝히는 커다란 횃불이 될 것입니다.

저는 신도님들의 정성과 노고에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선암사 주지로 부임하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하여 매일 기도를 올립니다.

또 태고종 스님들과도 선암사의 원만한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서로간의 불신과 반목이 남아 있지만 언젠가는 진실과 진심이 통하리라고 믿고 묵묵히 황소가 걸음을 옮기듯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선암사 정상화는 아직은 갈 길이 먼 불사입니다만 저는 이번 수계법회와 부처님오신 날을 보내면서 우리 신도님들을 통해서 커다란 희망을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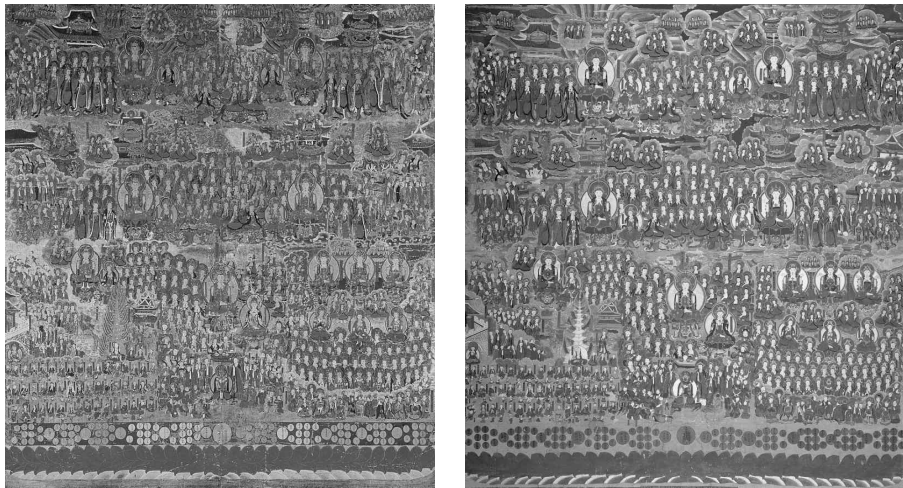
앞으로 이 수승한 불사를 원만하고 여법하게 회향할 수 있도록 신도님들과 함께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산 자락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주지 법원 합장 ㊤

화엄의 세계를 그림으로 읊다

- 순천 선암사 팔상전 화엄경변상도 -



뽕은꼴 화엄경변상도

국보 제314호 송광사 화엄경변상도(左), 선암사 화엄경변상도(右)

선암사 팔상전에 봉안되었던 화엄경변상도는 『화엄경』의 7처9회(七處九會)의 설법내용을 그린 변상도로, 비단 바탕에 채색하여 그린 그림이다.

이 화엄탱은 기본구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구도상 상·하단 모두 법회장면이 거의 대칭을 이루며 펼쳐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는 구도와 더불어 황토색 바탕에 홍색과 녹색 및 금색을 사용하고,

각 회주인 보살형 노사나불의 영락에 고분법을 활용하여 장식함으로써 화면이 밝고 화려해지는 18세기 불화의 경향을 살필 수 있다.

그림에 대한 내력을 적어 놓은 기록에 의하면, 조선 정조 4년(1780)에 조성한 것을 알 수 있다.



순천 선암사 화엄경변상도(도난전)

선암사 화엄경변상도는 현존 조선시대 화엄경변상도 중 조성시기가 가장 빠른 송광사 화엄변상도와 불과 10년 차이로 늦게 조성된 것으로 도상과 크기가 유사하여 미술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수작이다. 그러나 국보급이었던 본 불화는 선암사 팔상전에 봉안 중 아쉽게도 지난 1999년 3월 23일 도난당하였다. ☹



六年只爲路多岐 여섯 해나 갈림길에서 헤매고
喪道從來語有枝 도를 잃고 어긋난 말도 많았는데
精義入神方領會 이제서 참된 이치 깨달았거니
悠悠爭得析群疑 어찌하면 많은 의심 깨드릴 것인가.

大覺國師 義天 (1055~1101)

부처님의 생애(5)

설산수도(雪山修道)

-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시다 -

편집실



설산수도상
중심사 대웅전
일화 정경문 作

여러 스승에게서 배웠으나, 곧 스승의 경지에 도달하여 더 이상 그를 가르칠 이가 없었을 때, 수행자 고타마는 당시 다른 수행자들이 그러했듯이 고행의 길로 들어섰다. 그의 고행은 실로 다른 어느 누구도 흉내 내지 못할 정도로 치열한 것이었다.

부처님의 일생을 찬탄한《불소행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나는 실로 고행자 중에 최상의 고행자였

다. 남들이 바치는 음식도 받지 않았으며 풀과 떨어진 과일만 주워 먹었다. 나는 무덤 사이에서 시체와 해골과 함께 지냈다. 내 목에는 여러 해 동안 때가 끼어 저절로 살가죽을 이루었으며 머리는 길어 새들이 찾아들었다.

나는 누구보다도 더한 고독한 고행자였다. 나는 숲에서 숲으로, 밀림에서 밀림으로, 낮은 땅에서 낮은 땅으로, 사람들에게서 멀리 떠나 홀로 지냈다. 그러면서도 나는 모든 생명을 가없이 여기는 고행자였다. 나아가

거나 물러서거나 조심하여 한 방울의 물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그것은 그 가운데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별레들일지라도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하루를 대추 한 알로도 보냈으며 멍쌀 한 알을 먹고도 지냈으며 하루에 한 끼, 사흘에 한 끼, 이윅고 이레에 한 끼를 먹고 보름에 한 끼를 먹었다. 그래서 내 몸은 무척 수척해졌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말했다. '아 싯달타 태자는 이미 목숨을 마쳤구나. 이제 곧 목숨을 다할 것이다.'라고

부처님은 과거의 어떤 수행자도, 미래의 어떤 수행자도 자신과 같은 고행을 할 수 없을 것이라 하실 만큼 고행에 몰입하였다. 이 때 정반왕은 아들을 염려하여 다섯 사람을 보냈는데 이들도 고타마와 함께 수행자가 되어 고행을 하였다.

고타마의 수행은 무서우리만치 엄격한 것이었다. 몸이 쇠약해져 죽음 직전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고타마는 6년에 걸친 극심한 고행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고, 육체를 학대하는 것만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고행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당시 출가 사문이나 인도 사람들은 고행을 함으로써 욕망을 억제하고 정신 생활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고행을 한 사람은 모종의 신비하고도 초인간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고행의 포기

는 출가 수행자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나 관습까지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다른 수행자들로부터 타락한 사문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결정이었다.

그러나 수행자 고타마는 당시 많은 수행자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주저 없이 고행을 포기했다. 이것은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고도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수행자 고타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근처 네란자라강에 내려가 지치고 때 묻은 몸을 씻었다.

그리고 소를 몰고 지나가던 수자타라는 소녀가 바치는 우유죽을 마시고 건강도 회복하였다.

고타마와 함께 수행하던 다섯 수행자들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크게 실망하여 그를 비난하며 다른 곳으로 떠나 버렸다. 그러나 고타마는 건강을 회복하고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보리수(菩提樹)아래 놓인 반석 위에 풀잎을 깔고 앉아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여 진리의 길을 찾아 나섰다.

이처럼 부처님의 생애에는 위대한 포기가 몇 번이나 있다. 부귀와 영광이 보장된 왕위를 포기했고, 행복과 안락이 보장된 가정을 떠났으며, 모두가 믿는 당시 최고의 사상을 포기했다.

최고의 고행자라는 명에도 포기했다. 이것은 세상 전부가 자신을 외면할지라도 참된 것이라면 주저 없이 결단을 내리는 진정한 수행자의 길을 보여준 것이다. ☺

봉사와 희생은 불심으로부터...

벽하 김경식 불자

편집실



불가에 귀의하고 평생을 절에 다니며 철마다 공양을 올리고 덕 높으신 스님 찾아다니며 공부하고 조석으로 예불을 모시며 틈틈이 염불하고 수행하는 이 땅의 많은 불자들도 정작 내 몸 아깝지 않은 이는 없을 것이다.

그 귀하고 아까운 내 몸을 던져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하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불자가 있다.

바로 벽하(碧河) 김경식 불자이다.

그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사고를 예방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기꺼이 한 몸을 던질 준비가 되어있는, 늘 그렇게 하고 있는 불자다.

군인, 경찰 등 다른 직업도 철저한 희생정신이 없이 근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위험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더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예산과 장비로 일선 소방관들의 고군분투는 이미 언론을 통하여 잘 알려진 바이다. 그럼에도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삶을 계속하는 것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사람에 대한 애정과 연민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마음자리에 부처님을 담고 사람을 향한 지극한 마음이 있어야만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천길 물속으로 힘준한 산속으로 내 몸을 던져 다른 이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군이 불가에 귀의하지 않았더라도 소방공무원들은 이미 보살이다.

공짜는 없다!

“남의 것을 공짜로 먹지말자”

이 말은 제 과거에 대한 반성이자 미래에 대한 설계입니다. 총각시절 음주와 잡기에 심취하며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았던 날들, 명약관화한 일이겠지만 곧 궁핍이 왔고 함께 인생을 즐기던 친구들이 어느덧 주변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세월을 겪으며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힘들었던 생활의 굴레를 벗어나게 했던 작은 깨달음이었는데, ‘아! 남의 돈을 공짜로 먹지만 않으면 되지 않을까?’ 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천 했지요.

내기당구, 고스톱 이런 잡기들을 끊고 돈내기가 아닌 밥 사기 등으로 바꾸며 돈내기로 소원해졌던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로 즐기던 외상인생도 점차 정상이 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 대략 한 20여 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세운 원칙 ‘남의 것을 공짜로 먹지 않겠다.’는 따지고 보니 얼마 전 수지한 오계의 불투도와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생활이 정상적으로 되면서부터 결혼도 하고 학업에 매진하여 대학에 뒤늦게 진학하여 사학을 전공하고 다시 행정학 박사도 취득하였습니다.

학위를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님을 아는 순간 또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것을 도전해야 할 것인가에 생각을 가다듬게

되는 요즘입니다. 직업은 소방공무원이고, 초기 전공은 사학이고, 후기 전공은 행정학이고, 종교철학은 불교인데, 이 서로 다른 4가지를 어떻게 접목을 시켜볼까하는 것을 두고 지속적인 사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계를 하고나서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신도오계를 모두 지키기란 힘들 것이라 스스로 판단하지만 가능한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 한다는 결심을 해 봅니다.

수계와 지계로는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공과를 살펴보고 가다듬어 재가불자로서 삶이 되도록 노력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큰 깨달음은 아니었을지라도 나의 생활을 반성하고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 바로 실천하는 것이 작게는 개인의 깨달음이고, 크고 멀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 감히 외쳐 봅니다.

내 삶의 현재를 살펴 과거의 행적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미 현자다. 어려웠던 시기 자신을 돌아보고 진일보할 수 있었던 만큼 미래도 확실하게 만들어 가고 있으리라. 직업과 전공, 종교가 어우러지는 무언가가 꼭 만들어져 성과를 내길 기대해 본다. ☺

벽하(碧河) 김경식

소방공무원
순천대학교 강사
행정학 박사



- 5월 소식 -

01.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위 답사

지난 5월 9일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서 선암사를 방문하여 세계 국제학술대회 관련 협의 및 등재후보사찰인 선암사를 답사하며 선암사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역사, 자연경관 및 보존 현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02.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 개막

지난 5월15일(금)부터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중인 특별전 '불전장엄-불전장엄, 불교 푸른 장엄의 세계'에 선암사의 유물이 다량 출품되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 선암사의 용문가사탁의는 특별전의 핵심으로 부상하였습니다.



03. 서울봉축행사 및 무차선법회 참석

지난 5월16일(토) 서울 동국대에서 광화문에 이르는 거리를 등불로 수놓은 서울 등축제와 광화문 광장에서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기원대회)'가 개최되어 성료하였으며 선암사에서도 참석하여 그 장엄한 법석의 환희를 함께하였습니다.



04. 불기 2559년 제9회 순천 등축제 봉행 및 참석

지난 5월 16 ~ 17일 이틀간에 걸쳐 순천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부처님오신 날 기념 순천 등축제가 봉행되었습니다. 17일 봉축법요식에 주지스님께서 내빈으로 참석하여 등 콘테스트 수상자들을 시상하였으며 종무실장이 봉축법요식의 사회를 보았습니다.



05.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

지난 5월21일(목) 죽도봉 공원 현충탑 앞에서 선암사 주지스님을 비롯하여 민관군 관계자들과 참전용사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의 시작을 고하는 개토식이 봉행되어 사업의 원만 추진과 전사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였습니다.



02. 문화재 보수 자문회의

지난 5월 30일 오후 5시 서승탑군 현장에서 문화재 전문위원, 문화재청 관계자, 시공업체, 주지스님 등이 참석하여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보존처리에 들어가는 서승탑군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문화재 보수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 6월 예정일정 안내 -

01.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미얀마 답사 예정

오는 6월 2일(화) ~ 7일(일)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선암사를 비롯한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 대상 7개 사찰 실무자와 관계기관, 종단 관계자등이 동참하는 미얀마 현지 답사 및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선암사에서는 김희철 종무실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02. 차 체험관 철거소송 항소심 선고예정

오는 6월 3일(수)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4층 대법정에서 차 체험관 철거소송 항소심의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2011년부터 진행 되어온 긴 소송이 원만하게 회향되어 선암사의 재산권을 지키고 정상화의 기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03. 2015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

2014년도 사업이었던 서승탑군 보존처리와 올 해 사업인 성보박물관 수장고 개보수, 선암사 괘불탱 보수 등이 6월을 맞이하여 본격적으로 추진 될 예정입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관리하고 지켜서 전통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04. 2015년도 종무행정지도

오는 6월 22일 선암사 종무행정지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종무행정지도는 사찰의 운영현황을 종단에 보고하고 종단으로부터 그 적정성을 평가받는 것으로 어려운 여건의 선암사이나 좋은 평가가 있을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불기 2559년 6월 성지순례법회 안내

오는 6월 13일 토요일에는 해남 대흥사로 성지순례법회를 봉행합니다.
선암사와 함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대흥사는
서산대사와도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신도님들과 신심을 고양시키고 친목을 도모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불기 2559년 6월 성지순례 법회

일 시	불기 2559(2015)년 6월 13일(토)
	오전 09시
장 소	해남 대흥사 외
대 상	선암사 신도 누구나
동참금	3만원



- 사랑방 이야기 -

01. 선암사 신도기본교육 회향 및 첫 수계법회 봉행

지난 5월 9일 그간 진행되어온 제 2기 선암사 신도기본교육이 수계식과 수료식, 행도 품서식을 끝으로 회향하였습니다. 총 10분의 신도님들께서 신도기본교육을 무사히 이수하고 행도품계를 수지하였습니다. 수계제자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02. 자전거동호회 '(가)마구뽕어스' 출범 준비

선암사 신도회에서는 동천일대를 주 활동무대로 저녁과 주말에 함께 자전거를 타며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자전거동호회를 결성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칭 '마구뽕어스'는 고가의 자전거가 아닌 생활 자전거 이용자들도 부담 없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체육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03. 선암사 신도회 지역아동센터 후원

선암사 신도회에서 지난 5월 26일 승주지역아동센터에 기정떡 간식 후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선암사에서는 매월 1회 승주지역아동센터에 간식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회와 함께 자주 후원하여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내는데 일조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0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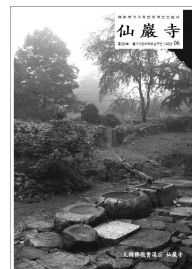


03

- 월간 『仙巖寺』 정기구독 신청 안내 -

- 월간 「선암사」가 정기구독 회원을 모집합니다.
- 정기구독 회원이 되어 매월 가정과 직장에서 월간 「선암사」를 편안하게 받아보시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문의 월간 선암사 편집실 / 전화 : 061-725-5108
 계좌 농협 301-0128-6618-31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구독료 3만원/1년



선암사 성지순례 안내

조계산 자락에 위치한 천년고찰 선암사는
 우리나라 전통 불교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선암사를 참배하시고 무량한 복덕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 문의처 :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종무소
- 전화/팩스 : 061-725-5108 / 061-753-5108



아름다운 동행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시원하게 먹을 수
 있도록 팔빙수 조리세트를
 선물합니다.

- 캠페인기간 : 05.20 ~ 08.15.
- 지원대상 : 전국 지역아동센터
- 후원동참 :
 농협 301-0167-2578-81
 (예금주 : 아름다운동행)
 - 후원문의 : 02-737-9595



서울시청사 본관동

DESIGN CASTLE

주요실적

- + 서울시청사 건립공사 중 문화재 복원공사
- + 경주 양동마을 문화관 사인패널전시물 제작 설치
- + 김해 롯데 아울렛 가야역사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 + 경주 쪽샘고분발굴 체험관
- + 근대 배수로 모형제작설치
- + 제주도 발자국화석 종합계획서
- + 광주 요지보호각 전시물 제작 및 설치
- + 경포대 현대호텔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

가야역사관(기마무사모형)

(주)디자인캐슬

DESIGN CASTLE

>>> 본사 : 경북 경주시 북성로 51번길 26-10 2001(서부동, 경주오피스텔)
>>> 지사 :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60 D동 610호(소하동, 광명테크노파크)
>>> 전화 : 054,772,1430 / 02,2083,1430 >>> 팩스 : 054,772,1431 / 02,2083,1621